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7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21.(목)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담당과장	채규남 과장(044-203-4610)	담 당 자	유상열 사무관(044-203-4612)

경제자유구역 상반기 5.6억불 외국인투자유치,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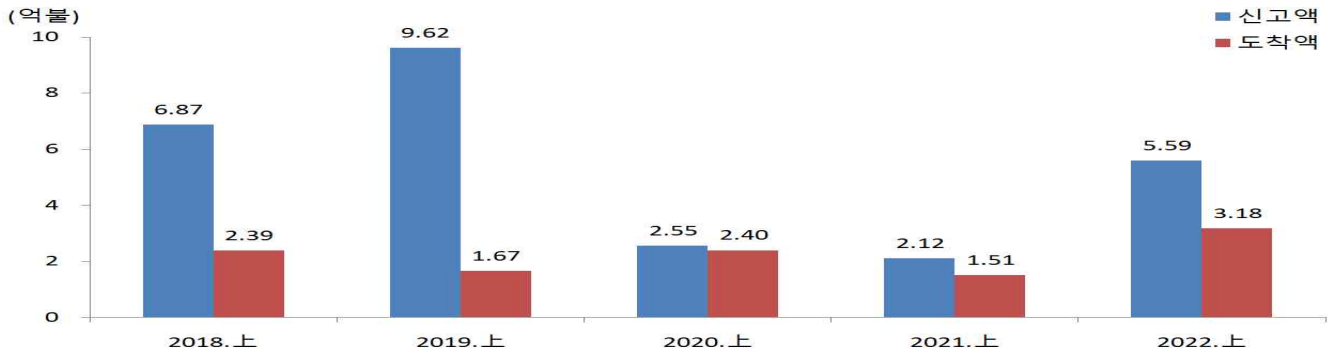
- '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21(목)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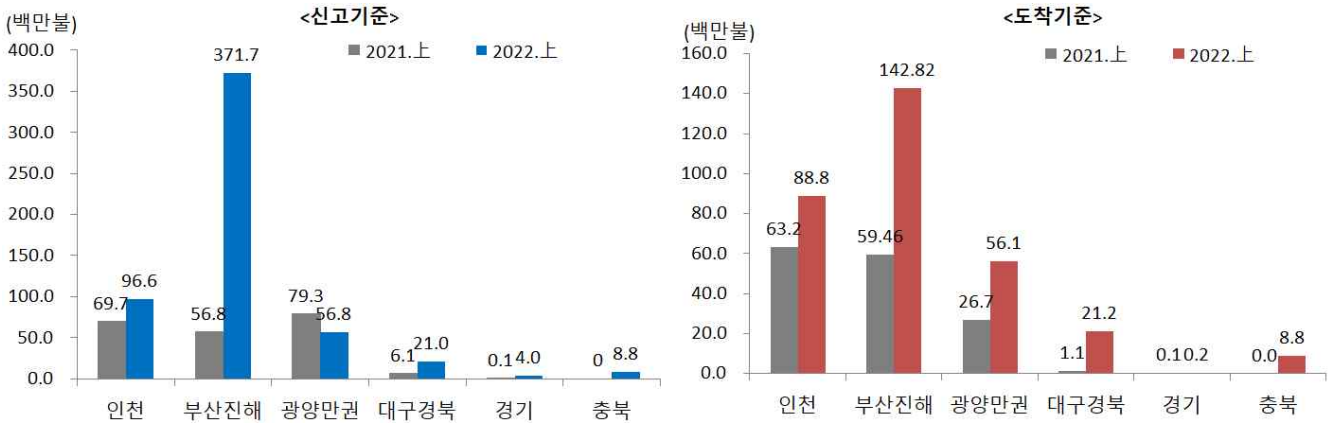
<'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2.7.21(목), 14:00~16:00 / 영상회의로 개최
- **(참석자)**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코트라 등
- **(주요내용)** '22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점검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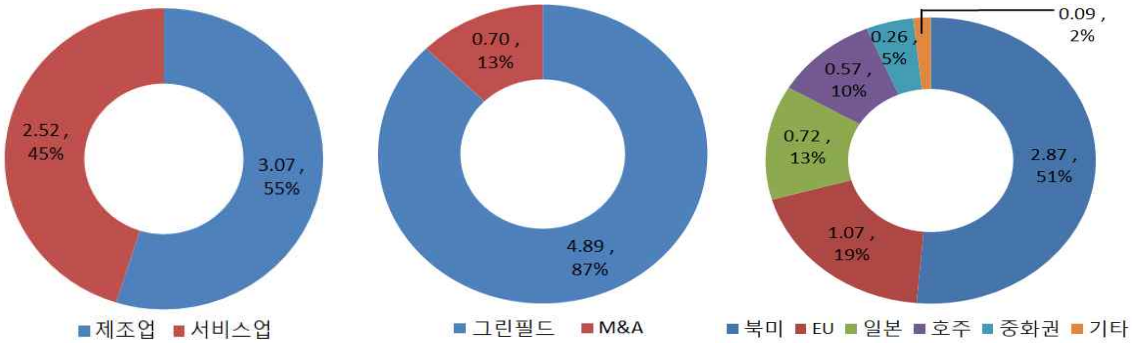
□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제한된 투자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신고 5.6억불, 도착 3.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64%, 111% 증가하였으며,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청별 실적이 골고루 상승하였고, 그린필드 분야 투자에 집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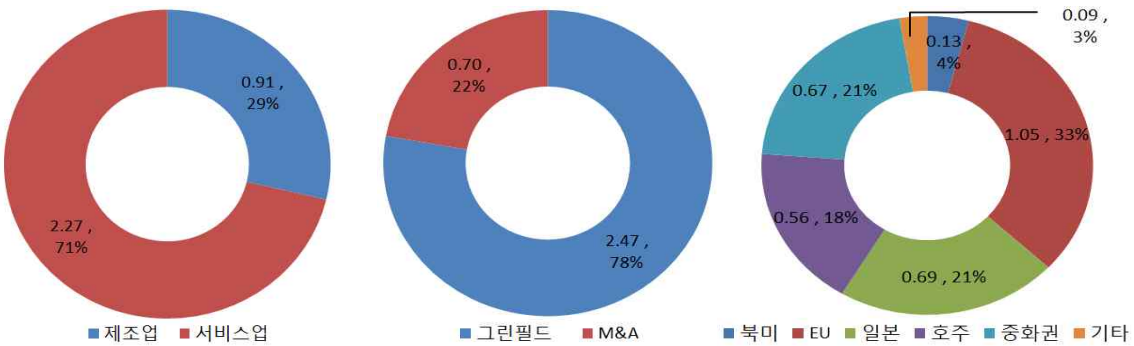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 (신고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3.07억불(자동자·부품 2.32, 금속 0.57 등), 서비스업 2.52불(운수·창고 1.33,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0.37, 도소매 0.22 등),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4.89억불, M&A 0.7억불, 국가별로는 북미 2.87억불, EU 1.07억불, 일본 0.72억불, 호주 0.57억불, 중화권 0.26억불 등임



○ (도착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0.91억불(금속 0.56, 자동차·부품 0.21 등), 서비스업 2.27억불(운수·창고 0.79, 연구개발 0.45,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등),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2.47억불, M&A 0.7억불, 국가별로는 EU 1.05억불, 일본 0.69억불, 중화권 0.67억불, 호주 0.59억불, 북미 0.13억불 등임



□ 새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신기술 중심의 외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대상 IR 확대와 타겟기업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 산업통상자원부는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홍보하는 한편, 주요 국내외 전시회에 홍보관 운영,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기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시 유턴기업 유치실적 포함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32년) 수립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반영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대내외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유턴기업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유상열 사무관(☎ 044-203-4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